

Information



근로자, “작업장 작업환경측정제도 꼭 필요하다!”

- 노동부, 작업환경측정제도 인식도 조사 결과 -

근로자들은 직업병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합리적인 작업환경측정 주기 개선 등에 관한 연구』의 하나로, 지난 4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노, 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및 근로자는 전체 249명 중 80.7%(201명), 전문가는 전체 354명 중 86.44%(306명)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횟수 등의 규제에 관하여 전문가는 89.8%, 사업장 및 근로자는 89.6%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측정관련 규정 준수에 관해서는 산업보건기관 등의 전문가는 60.1%, 사업장 및 근로자는 83.1%가 매우 잘 준수 또는 대체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작업환경측정 주기가 3월, 6월, 1년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73.2%가 적정하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장 규모별로 작업환경측정제도 인식도(100인 미만 60%, 300인 이상 93.33%) 및 제도 준수율(100인 미만 67.27%, 300인 이상, 89.53%)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건관리기술 지원 확대 및 신규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식도 및 준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업환경측정제도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 기능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08년 상반기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작업환경측정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불법 석면제품 제조·사용 사업장 조심하세요!

- 노동부, 석면함유 제품 제조·사용 등 일제점검 실시결과 발표

- 제도 정착시까지 지속적인 단속 실시 계획

최근 석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사용 등이 금지된 석면제품을 사용해 온 사업장에 대한 사용중지, 시정지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지난 9~10월간 자동차정비업체 등 293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14.0%에 해당하는 41개소에서 금지제품 사용 등 1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중 P자동차정비업체 등 8개소에 대해 브레이크라이닝 등 13건을 사용중지토록 하고 37개소에 대해 110건의 시정지시를 하였다고 7일 밝혔다.

점검실시 (개소)	위반사업장 (위반율)	처리내역(개소)	
		시정지시	사용중지
293	41개소(14.0%)	37(110건)	8(13건)

※ 점검대상은 자동차정비업체, 석면제품 제조업체 등으로, 위반은 1건 이상 지적된 업체임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하였으며, 이들 석면제품의 불법 유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원료 사용업체(16개소)에 대하여도 보호구착용 여부, 환기시설 설치여부 등의 점검을 이달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장은 “앞으로도 불법 석면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2003년 7월부터 석면해체 허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그동안 불법 석면해체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해 1월부터는 석면 함유제품을 금지하는 등

석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왔다.

또, 최근 J화학 중사 근로자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손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적절한 보상은 물론 화학 중사근로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업체와 유사한 8개 방직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도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7년 제15회 안전경영대상 시상

- 종합대상에 “(주)포스코건설 The#센텀스타 주상복합 신축공사” 수상

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안전경영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12일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안전경영대상은 안전경영 유공기업을 포상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CEO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1993년 도입된 이래 이번이 15번째 시상식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안전경영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큰 6개 사업장이 대상(大賞)을 수상하였고, 특히 독창적인 안전활동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주) 포스코건설 The#센텀스타 주상복합 신축공사』가 영예의 “종합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어 부문별 大賞은 ▲제조업 대기업부문에 (주)포스콘, ▲제조업 중소기업부문에 (주)아모레퍼시픽, ▲건설업 토목부문에 대림산업(주) 인천대교 연결도로 2공구현장, ▲전기/가스/수도업부문에 (주)충남도시가스, ▲ 기타 산업부문에는 한국복합물류(주) 군포터미널이 각각 받았다.

이들 기업에는 트로피, 현판 및 상금 200만원의 부상(종합대상은 300만원)과 함께 1년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각종 지도 점검을 면제받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특별상으로 대림산업(주) 오현석 차장이 기술상을,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본부 박연홍 본부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영예의 “종합대상”을 차지한 “(주)포스코건설 The#센텀스타 주상복합 신축공사”는 근로자와 관리자의 Cell형 안전관리 체계인 Cell System을 운영하여 ‘전 직원의 안전관리자’ 화를 추구하고 건설현장 재해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5대 신규항목의 관리를 통하여 초기 재해발생 위험성을 Zero화하도

록 노력하는 등 독창적인 안전경영활동으로 여타 사업장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안전경영」을 실천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하고, “노사정이 한마음이 되어 「안전경영」을 실천할 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노사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를 강조했다.

산업재해를 0.53% 감소, 2년 만에 감소세

- 노동부, 3/4분기 산업재해를 전년동기 대비 0.06%P 감소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7년 3/4분기 산업재해 통계에 의하면 재해율 0.53%로 전년동기 0.59%보다 0.06%P 감소하였다.

재해자수도 66,129명으로 전년 동기 67,271명보다 10.2% 감소하였고, 사망자도 1,804명, 사망만인율은 1.45로 전년 동기 1,858명, 1.62에 비해 사망자수는 △54명(△2.9%) 감소하였다.

특히, 사망만인율은 △0.17P(△10.5%) 감소하였고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0.81로 전년 동기 0.86에 비해 △0.05P(△5.8%) 감소하였다.

규모면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91.3%(60,407명), 전체 사망자의 81.9%(1,477명)가 각각 발생하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75.8%(50,107명), 전체 사망자의 59.2%(1,068명)가 각각 발생하였다.

또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25,414명(38%)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13,690명(21%)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재해율은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며, 재해자수도 건설업과 기타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했다. 사망만인율과 사망자수는 운수 창고 통신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했다.

재해유형은 협착(감김, 끼임), 전도, 추락, 낙하·비래 등 5대 재래형 재해가 업무상 사고 재해의 79.5%(45,584명)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